

사회당위원장 65년조약때 거론안돼

한글·당사역서 訪田忠仁의
이름사 氏名 韓國의 오로
사화단체를과 영대해 명학
한 사설구명파 함께 보강
문제를의 해체책을찾아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前 수상) 韓日의원
연맹(韓日連盟)과 이 단체
것을 갖고 『挺身隊 문제의
관련해 日本 정부는 여러가
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며 『日本 정부가 적대한 대
응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사회¹¹³당 위원장

【도쿄=박종문 기자】 다나베 마코토 일본 사회당 위원장은 24일 일제의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 사회당은 한국의 여러 단체들과 연대해 명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보상문제 등의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나베 위원장은 이날 도쿄 사회당 당사에서 방일중인 외무부 기자단과 가진 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원래 중군위안부 문제에 정부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당사자들과 행적 있는 한일 두나라 국민들의 행동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면 1992-06-25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재습격 보강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케시타 노보루 전 일본 수상(한일의원연맹 일본쪽 회장)도 이날 도쿄 시내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외무부 김자담과 만나 일제때의 한국인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는 여러가지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적당한 대응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나베 위원장은 유엔평화유지
활동 협력법에 대해서는 "일본
헌법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금
지하고 있으며 국회의 해산이나
총선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다음달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나베 위원장은 "정신대 강제
징용 등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과거에 피
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다나베 위원장은 북한의 핵문
제와 관련해 "남북상호사찰은 기
본적으로 한국과 북한간 당사자
들의 문제로 우리 당이 거론할 계
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국제
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충분히 받
아 의혹을 해소하면 일본이 수교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핵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차원서 일본에 요청 방침 처음 밝혀

【연합】 중국 정부는 24일 정부에 처음으로 중국인 종부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할을 공식으로 밝혔다고 일교도통신>이 베이징발로

통신 [] 따르면 중국 외
우다이부 아시아국 참사
[] 중국인 중군위안부 문
권해 "일본 정부는 한국
[]과 같은 기준으로 적절
[]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
학원에서 처음으로 보상

을 요구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우 참사관은 또 "일본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중군위안부 태조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적당 한 시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 리할 것인지 등에 관해 일본 정 부와 집중적 협의를 하고 싶다" 고 밝히고 "중국어 중군위안부 문제는 미묘한 사안이므로 중·일 우호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신중 히 다루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 참사관은 최근 중국 에서 강력하게 일고 있는 진쟁배

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배상 요구를 포기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일본군이 남긴 독가스 처리문제, 일본에 강제연행된 중국인 노동자의 보상문제, 중국인 종군위안부 문제 등은 전쟁배상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